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로 ‘지방 시대’ 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률안 입법예고...이전 기업 감세 혜택·명문학교 설립 근거 마련

정부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새 법안을 마련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정책 추진에 나선다.

특히 통합 법안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

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통합법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각 수립되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이사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사·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하게 된다.

특히 이번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에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회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으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 이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진영 초월해 지방분권 협력하고 도·농 지자체 상생 노력 있어야”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6> 佛 워르벤 홍보 브누아 코르미에 지역민·환경·건강·도시 연대 등 현실·법안 괴리없는 정책 개발

프랑스의 자치분권 성공은 ‘강력한 법적 지원’과 ‘다양한 지방협력체’를 원동력으로 손꼽을 수 있다.

특히 각 지자체를 대표하고 정부, 의회, 중개기관, 파르너, 각종 공공기관, 선출직 공무원 및 지자체 협회 등이 망라된 워르벤(URBAINE)은 모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다.

워르벤은 각 지자체의 공공정책과 프로젝트, 법률 등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함께 논의하며 이를 회원 지자체에 홍보하는 일 등을 도맡고 있다. 또 지역과 지역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환경친화적 전환, 건강, 도시정책, 연대 등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의 자치분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프랑스 워르벤 브누아 코르미에(Benoit Cormier) 홍보 담당자와 공동취재진이 지난 7월 6일 진행한 인터뷰의 일문일답.

-프랑스 워르벤을 소개하자면?

▲대도시는 물론 해당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도시중심체와 도시지역 공동체, 주거밀집공동체 등 도시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이다. 두 가지 주요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원들이 좌우 진영을 초월해 각자의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로 규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과 법안의 괴리가 없는 도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회원 지자체는 108곳이고 도시의 시장과 공동체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선출직 공무원의 수는 81명이다.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는 3000만 명에 가깝다.

-현재 관심 사안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약 10여년 전부터 세금의 중앙집중화가 이뤄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특정 사안에 대해 예산을 거두는 방향으로 가고, 지방 재원은 없어지고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부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재정은 당면 문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랑스 워르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제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다. 단순히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에너지 전환은 재건축이나 도심 공원 조성, 도심 열섬 현상 등 모든 분야와 연관이 돼 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구매력 제고,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급여 상승, 고령화, 지역 개발, 관광 등 모든 주제가 중요하다.

-프랑스 자치분권의 특징은?



▲프랑스 자치분권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권한임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온전히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권력은 5년에 한 번, 행정부는 2년에 한 번 등 주기적으로 바뀐다. 지방권력이 자치분권에 맞는 책임을 다 했느냐는 임기가 끝나는 6년 후에 평가 받게 될 것이다. 자치분권이 이뤄졌으므로, 시민들이 뽑아준 권력이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재정의 중요성은?

▲세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 프랑스인들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세금이 너무 세, 라고 쉽게 말하고는 한다. 그러나 세금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어서 안 된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만큼 벌었다는 말이 되므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일이다. 프랑스인의 절반 가량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나머지는 소득세를 더 낼 정도로 많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내가 낸 세금이 내 지역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이 낸 세금 해당 지역의 발전에 다시 투자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워르벤과 같은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중간 매개체가 없는 한국의 지자체들을 위한 조언은?

▲최근 지자체장 선거에서 프랑스 워르벤은 모든 출마자들에게 300개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 중 절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지방정부들끼리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처럼 땅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더더욱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각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니까. 프랑스에서도 대도시 지역 지자체와 농촌 지역 지자체의 상생에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남, 공예품대전 선전

문화재청장상 등 11개 수상

제52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전남에서 출품한 11개 작품이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문화재청장상, 장려상, 특선 등에 입상했다.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은 공예 기술의 계승·발전과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 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는 사·도 지역 예선을 거친 총 437점의 공예품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벌였다.

전남에서는 도내 경선에서 특선 이상을 수상한 25점이 출품됐으며,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부문에서는 문화재청장상 2점, 장려 5점, 특선 4점 등을 차지했다.

개인전 문화재청장상 수상작은 김육남 작가의 ‘물길 따라 온 여행’과 정기봉 작가의 ‘정자물기풍경’이다.

‘물길 따라 온 여행’은 물고기 문양의 아가지기한 공예품으로 예술미와 실용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자물기풍경’은 청자 특유의 푸른빛으로 그 아름다움을 잘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 우수작은 각종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특전이 있다. ‘대한민국 공예명품 인증마크’ 사용 자격도 주어진다.

양국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창의적 공예품 개발 및 공예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등 전남 우수 공예인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



김영록(가운데) 전남도지사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쌀값 현황 및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부, 쌀값 안정 의지 보여야”

김영록 전남지사, 대책 마련 촉구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폭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행태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전남 쌀 생산액이 약 2조 2000억이었는데, 가격이 20% 이상 폭락하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5000억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 지역 농촌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남 쌀 생산량(79만 t)을 당시 쌀값

(2021년 10월 5일 80kg 한가마 기준) 22만7212원으로 계산할 경우 2조 2000억원 수준인데, 현재 쌀값이 16만4740원으로 전년보다 27.5%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5000억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점을 들어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안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느냐가 시장에서 나타날 개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났다”고 언급한 뒤 “10월 수확기 햅쌀 가격이 발표되기 전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비축미를 100만 t까지 늘림과 동시에 중단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재추진, 해외원조 물량 대폭 확대 등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김 지사 주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건 영상 기사 정보

카카오톡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kwangju10thnaver.com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